http://doi.org/10.34227/tjocc.2023..29.45

영화 〈작은 연못〉이 재현하는 노근리 사건과 한국 전쟁의 대중 기억 구성*

태지호**

국문초록

한국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의 문제는 한국 사회 그리고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한국 전쟁과 관련된 기억의 유형과 양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노근리 사건을 최초로 다룬 영화 <작은 연못>을 통해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영화 텍스트와 그 수용이라는 두 가지 연구방법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작은 연못>의 서사, 표현, 상징 등과 같은 재현 그 자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그것을 대중들이 어떻게 수용 혹은 의미화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다루었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 결과, <작은 연못>은 기존 한국 전쟁 영화의 장르적 관습을 벗어나 기교나 표현을 최소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작은 연못>은 노근리 사건에서 발생했었던 죽음이나 희생만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억을 재생하거나 환기할 것을 유도하였다. 두 번째로 리뷰 분석을 통해, <작은 연못>을 매개로 하여 한국 전쟁의 대중 기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 유형의 특징은 이념적 대립의 소환, 인간성의 회복과 참회, 기억 그 자체에 대한 평가, 영화라는 재화에 대한 평가, 상호텍스트적 기억 등으로 요약된다. 종합하면, <작은 연못>은 단순히 시각적 경험을 제시한 영화가 아닌 기억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문화적 실천이며, 그에 따라 대중 기억 또한 다양한 기억들 간의 경합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한국 전쟁, 노근리 사건, 영화 <작은 연못>, 대중 기억, 재현, 전쟁 영화

---

* 본 연구는 2023년 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3단계 제1회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논문입니다.

**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Department of History of Andong National Univ.)

접수일(2023년 11월 15일), 수정일(2023년 12월 19일), 게재 확정일(2023년 12월 23일)

I. 들어가는 글

오늘날 기억 개념의 주목 정도와 그 활용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애초에 기억한다는 행위는 재현이라는 과정을 수반함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기억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또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디어는 우리의 현실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되었으며, 과거에 대한 기억 또한 미디어를 통해 '기억 붐'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1] 이와 같은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미디어를 통한 기억의 기록과 공유와 같은 일련의 기억 재현에 관한 논의는 우리 일상의 정서 구조나 과거를 둘러싼 '역사' 인식 등과 같은 물음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억과 미디어와의 관계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규정되고 설명되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실 정체성 개념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성 즉 기억 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 또한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고 공유되는 것 또한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기억과 미디어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과거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물음보다는 '그것이 현재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와 더욱 밀접하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이 존재하지만, 전쟁 기억이 현재의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미는 특별하다. 이것은 오늘날에 왜 기억 개념이 중요한가라는 문제와 연관되는데, 무엇보다 20세기에 발생한 크고 작은 전쟁 기억은 아직도 생존자와 증언자가 존재하며, 그들의 '살아 있는 경험'들은 현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쟁이라는 폭력적이고 반인간적인 상황에 대해 증언자 그 존재와 더불어 그들의 기억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과거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능성을 가진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

1) Erll, A., *Memory in Cultur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1, pp .4-5.

이, 전쟁 기억 또한 다양한 미디어에 의해 재현되는데, 이것은 전쟁이라는 참상을 '생생하게' 다시금 우리의 일상에서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미디어에 의해 전쟁 기억은 현재 구성원들에게 감각적으로 현시화되며, 동시에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해당 사회 속에서 (재)부각되거나 관련된 담론들 또한 (재)확산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논의들에 대해 한국 전쟁이라는 과거 사건과 영화라는 미디어의 관계 속에서 다루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노근리 사건'에 관한 영화 〈작은 연못〉을 사례로 삼고자 한다. "노근리사건"이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하지만 이 사건은 발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망각된 비극이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특별법 공포 및 기념사업 등이 시작되었다. 한국 전쟁에 관한 기억 재현과 관련하여, 영화, 텔레비전 등과 같은 여러 미디어에서 한국 전쟁을 소환한 사례가 다양하다는 것은 다소 익숙한 사실이지만, 노근리 사건을 다룬 영화는 〈작은 연못〉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작은 연못〉을 다룬 논문은 여타의 한국 전쟁에 관한 영화를 다룬 논문과 비교할 때, 그 수가 많지 않다. 황영미는 〈작은 연못〉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보다는 미군과 민간인의 관계를 어떻게 재현하였는가 특히 미군이 민간인을 타자화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3] 문선영은 애도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작은 연못〉의 영상 표현과 서사에서 나타나는 '탈신화화'의 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다.[4] 모리스는 한국과 미국에서 제작된 한국 전쟁 관련 영화를 다루면서, 노근리

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3) 황영미, 「영화에 나타난 한국전쟁기 미군과 민간인의 관계: 〈작은 연못〉, 〈웰컴 투 동막골〉, 〈아름다운 시절〉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제18권, 2014, 159-185쪽.

4) 문선영, 「한국전쟁과 애도의 수사학: 〈작은 연못〉을 대상으로」, 『아시아영화연구』 제3권(제2호), 2010, 37-63쪽.

사건을 연상시키는 민간인 학살에 관한 영화인 〈영호작전〉에 나타난 전쟁의 비극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5] 하지만 본 논문은 이들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대중 기억 구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기억, 영화, 정체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영화 〈작은 연못〉이 재현하는 노근리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은 한국 전쟁에 관한 기억의 문제와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과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 논의의 전제이자 이론적 배경으로 한국 전쟁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적 지형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며 그 과정에서 노근리 사건과 같은 민간인 학살은 어떻게 망각되었는가에 대해 다룬다. 이와 더불어 영화가 한국 전쟁을 재현하는 관습은 어떠하며, 이것과 대중 기억과의 관련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본격적인 논의는 영화 〈작은 연못〉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한국 전쟁의 대중 기억의 구성 양상을 다루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는 각각 영화 텍스트 분석과 그 수용의 문제라는 두 가지 연구 방법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논의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작은 연못〉의 서사, 표현, 상징 등과 같은 재현 그 자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그것을 대중들이 어떻게 수용하거나 의미화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 위함에 있다.

II. 한국 전쟁과 기억의 정치 그리고 재현

1. 한국 전쟁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민간인 학살

한국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것은 전쟁 자체가 종식된 것이 아닌, 다시 말해 휴전 중이라는 현실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 전쟁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 있다. 첫 번째

5) 모리스, 마크, 「냉전 패닉과 한국전쟁 영화 : 죽창에서 신체강탈까지」, 김소영 편, 『한국영화, 세계와 마주치다』, 현실문화연구, 2018, 91-118쪽.

는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다수 생존해 있는 상황인데, 이들에게는 아직 전쟁으로 야기된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면 이보다는 두 번째 이유가 더욱 주목된다. 즉 한국 내의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은 한국 전쟁에 관한 기억 그 자체와 그 기억의 기반이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이미지는 대개 현재의 사회 질서를 합법화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기억의 관점"[6]에 비추어, 한국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라는 문제는 줄곧 전쟁 이후 역대 정권의 정책의 방향성과도 밀접한 이슈였다. 다시 말해, 한국 전쟁에 관한 이미지와 그 기억을 통제하는 것은 적어도 한국 내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정치적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활용된 일종의 정치적 책략이자 정치수사학적 관습이기도 했고, 이는 현재에도 여전히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은 전쟁에 관한 집단 기억이 국가나 정치 권력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는 가정을 이끈다. 즉 집단 기억이라는 것은 각각의 개인들의 기억이 합산된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같은 개인(들) 인식 외부의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특별한 방식으로 형성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전쟁의 집단 기억 또한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에 관한 기억이 필요한 현실의 정치권력에 의해서 그 기억의 패턴이 그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쟁과 관련된 제도, 재현, 실천 등이 수행되면서 그 집단 기억의 양태가 구체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혹은 그것을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논의의 강조점은, 집단 기억의 메커니즘을 전제로 하면 개인의 기억이 현재에 선택되거나 활성화되는 과정은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영향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그 기억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방법 또한 구성된다

6) Connerton, Paul,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 3.

는 점에 있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그간 한국 전쟁의 집단 기억은 고정된 전쟁 참여 주체를 상정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수행한 크고 작은 작전 그에 따른 전투에서의 승리와 좌절의 서사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공고히 하는 이데올로기는 반공(反共)이며, 이것은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을 표상하기 위한 심층적인 의미소가 되었으며, 그 자체가 한국 전쟁의 지배 기억이기도 했다. 이것이 한국 전쟁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가 작동하는 주된 모습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전쟁의 다른 기억들은 잊혀지거나 지배 기억의 논리 속에서 재구성되곤 했다.

망각되곤 했던 한국 전쟁에 관한 사건들 중에는 민간인 학살도 있었다. 전쟁 직전에 발발한 제주 4.3사건, 거창 사건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는 노근리 사건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사실, 근현대를 관통하는 시기에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쟁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으며, 이것은 전쟁의 가장 큰 과오이자 그 기억은 전쟁이 낳은 트라우마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에 걸쳐 채택된 제네바 협약, 특히 1949년의 제4협약인 전시에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민간인 학살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또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내법은 이에 관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의 제13조는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 범죄에 관한 것인데,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제1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간인 학살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 상황일지라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입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에 관한 지배 기억의 관점에 근거하여 노근리 사건과 같은 민간인 학살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지 못했다. 기억은 법적 의무와 별개로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 위치하면서 '역사성'에 기대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근리 사건이 쟁점화되고 이에 대한 기억의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경과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전쟁 휴전 이후, 노근리 사건의 생존자 및 유족자들은 1960년부터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한국이나 미국 정부로부터 외면받아왔다. 이후 30여년이 지난 1994년 4월 29일에 국내 연합통신에서 최초로 언론 보도가 있었고, 1994년 6월 15일에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가 정식 결성되었고, 1994년 7월 7일에 외신으로는 AP통신의 최초 보도가 있었다. 보도를 통해 사건이 주목되자, 1999년 10월 1일과 10월 2일에 각각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노근리 사건 진상 규명 지시가 있었다. 조사 이후, 2001년 1월 12일에 클린턴 대통령의 유감 표명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2004년 3월 5일에 한국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사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이후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실무 회의와 노근리 위령 사업,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 등의 기념 사업이 진행되어왔다.[7]

이렇듯 노근리 사건은 오랫동안 망각되고 은폐된 한국 전쟁의 단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 전쟁의 참전국이었던 미군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었기에 그 기억을 현재화한다는 것이 한국 사회 내에서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노근리 사건은 유족 및 언론 그리고 사회의 여러 계층들의 지속적인 그 기억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법적이고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 전쟁에 관한 공식 기억의 하나로서 승인되었다.

노근리 사건과 그 경과는 기억의 정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쟁 이후, 유족들은 한국 및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기억의 현재화를 위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이후 50여년에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국내외의 언론 보도를 통해 기억의 회복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었

7) 노근리 평화공원 홈페이지. https://yd21.go.kr/nogunri/, (검색일 2023년 3월 10일).

고, 이후 양국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 및 제도적 승인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서 유족들의 공식적인 기념식 거행이 수행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은 한국 전쟁의 지배 기억 속에서 망각된 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현재화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은 기억 투쟁과 경합을 위한 조건이자 그 자체가 결과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기억의 활성화라는 것이 국내외적 정치적 입장의 고려와 제도적 승인 그리고 미디어, 박물관, 기념식 등과 같은 일련의 기억 실천들 간의 관계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2. 한국 전쟁과 영화 그리고 대중 기억

여러 기억의 유형 중 문화적 기억이 전쟁과 가지는 관계는 특별하다. 전쟁은 전쟁 기간 동안 피정복지의 문화적 기억을 말살하기도 하지만, 전쟁 이후 다양한 문화적 기억을 생산하기도 한다.[8] 한국 전쟁 또한 그간 수많은 문화적 기억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있는 과거로 인식되어 왔다. 문화적 기억은 기억이 인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문화적인 재현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현실에서 공유된다는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기억은 기억의 정치성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일종의 지표이기도 하다. 물론 '문화'라는 용어가 광범위한 실천 작용을 의미하는 바와 같이, 문화적 기억은 그 형태 또한 다양하다. 가령, 문화적 기억은 책, 기념물 및 기념식, 박물관 등과 같은 다소 전통적인 유형들 외에 영화, 방송콘텐츠 등과 같은 근대 이후 등장한 대중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문화적 기억의 형태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이들이 내포하는 실천의 의미 작용이다. 이에 문화적 기억은 그 문화적 실천의 자율성이 어떻게 확보되는가에 따라 지배 기억을 반영하

8) Robert Bevan, *The Destruction of Memory Architecture at War*, 나헌영 역, 『집단기억의 파괴』, 알마, 2012.

거나 혹은 대항 기억의 관점에 근거하여 기억 투쟁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것은 문화적 기억이 재현과 실천의 문제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앞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한국 전쟁에 관한 기억의 문제는 특정한 의미를 수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적 기억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배 기억의 반영이나 재생산의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민간인 학살과 같은 사건은 그것의 사회적 기억이 공론화된 과정을 수반한 담론화가 어려웠던 만큼 문화적 기억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 또한 일종의 금기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영화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미 역사'와 영화의 관계를 다룬 로젠스톤에 의하면, 영화는 역사를 정서적이고, 개인적이며, 극적인 것으로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영화가 상품의 형태로 제작되는 생산 맥락에 비추어 과거 사건을 특정한 이슈 중심으로 통합하는 서사 전략을 취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9] 이것은 영화가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지도 않고 그러할 수도 없는 재현 형식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영화가 전쟁 기억을 특정 서사로 구성하기 위해 이미지를 배치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영화는 정서적이고, 미학적이고, 정치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는 몽타주 기억(motage memory) 개념과도 상통한다.[10] 주지하다시피, 군사 정권 휘하에서 한국 전쟁에 관한 기억을 재현하는 영화는 국민 계몽이나 선전을 위한 국책 영화의 일환이 되어 반공 이데올로기의 첨병 역할을 했다. 민주화 정권 수립 이후에는 이러한 양상이 퇴조하지만, 대신 영화 산업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성공적인'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 한국 전쟁이 기억되곤 했다. 이렇게 보면, 영화는 산업 혹은 상업의 논리와 결합하기 때문에 전쟁 기억은 이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적

9) Rosenstone, R. A., *Visions of the past: the challenge of film to our idea of hist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 50.

10)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89쪽.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상업적 스펙터클을 통해 일종의 합의된 전쟁 기억을 만드는, 다시 말해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는 영화적 장치를 통해 한국 전쟁 상황을 스펙터클로 재현하면서 유희적이거나 오락적인 볼거리로 활용하는 사례가 그것이다.[11)]

실로 오늘날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은 장르 영화라는 맥락 내에서 액션, 멜로, 코메디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소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전쟁 기억은 민족주의, 애국심, 인간애, 전쟁의 모순과 참상 등의 개념으로 그 의미 구성이 세분화함과 동시에 기억 산업의 자원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여 대중들에게 새롭게 이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도 한국 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억이 재현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여전히 한국 전쟁에 대한 지배 기억은 '어떤이'들에게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여기서 영화와 대중 기억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중 기억은 단순히 대중들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다. 미셸 푸코에 의하면, 대중 미디어는 대중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과거에 대해 기억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기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권력에의 의지가 표명되는데, 다시 말해, 대중 미디어에 의해 지배 담론과 지배 기억이 대중에게 주입되면서 대중 기억이 형성된다. 하지만 푸코의 강조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에 의해 과거에 대한 기억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다면, 역으로 그것을 누가 소유하고 제작하는가 혹은 누가 이용하고 소비하는가에 따라 과거는 지배적인 역사에 저항하는 새로운 기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12)] 이와 관련하여 스터르큰은 문화적 기억을 다양한 서사들이 역사로서 인정되기 위해 경합

---

11) 태지호·황인성, 「영화에서 드러나는 한국전쟁에 대한 집단기억과 대중기억 만들기」. 『한국언론학보』, 제58권(제6호), 2014, 298-299쪽.

12) Foucault, Michel, 'Film and Popular Memory', *Radical Philosophy*, 5(11), 1975, pp. 25-26.

하는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푸코의 대중 기억이 초점에 두었던 '역사'에 저항하는 논의를 확장하여 사적 기억이나 공적 기억 모두 '역사의 한 자리'를 두고 다양성을 드러내며 얽혀있는 상황으로 설명하기도 했다.[13] 이와 같은 논의는 영화와 과거의 사건을 '충실하게' 재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관점을 넘어서며, 협상 관계에 놓여있는 기억의 구성적 상황을 살펴봄에 있어 영화가 그 참조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덧붙여, 대중 기억의 구성과 상응 관계에 있는 미디어 환경이 최근에는 매우 다변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뉴미디어 등의 미디어는 기억의 생산, 유통, 소비 혹은 기억의 재현 등과 같은 문제 또한 비선형적 혹은 탈중심화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중 기억 개념은 기억이 사회적으로 통제되거나 규제되는 과정만이 아니라, 대중들에 의해 시도되는 과거의 능동적 재현으로서 저항의 가능성 또한 탐색할 수 있게 한다.[14] 따라서 대중 기억의 관점에 비추어 보면, 영화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시각적인 집단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기억과 대항 기억이 경쟁 혹은 타협하면서 다양한 기억이 공존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I. 영화 〈작은 연못〉이 재현하는 노근리 사건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작은 연못〉은 노근리 사건을 재현한 최초의 영화이다. 영화는 "이 영화는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영화 속의 인물과 사건은 재구성하였다."라는 자막을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따라서 실제 생존자나 사건의 관계자가 영

---

13) Sturken, M., *Tangled memories: The Vietnam War, the AIDS epidemic, and the politics of remember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 1.

14) 태지호, 「역사문화콘텐츠 연구 방법론으로서 '문화 연구'를 전유하기」, 『인문콘텐츠』, 제64호, 2022, 37쪽.

화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또한 영화의 주된 내용은 5일간 있었던 민간인 학살을 시간적 흐름으로 다루고 있기에, 일반적인 상업 영화 혹은 장르 영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에피소드에 기반한 복잡한 이야기 구조나 캐릭터 중심의 플롯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작은 연못〉에서는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재현적 특징이 동시에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영화가 수용자에게 제시하는 시각 경험적 강조점, 다시 말해 영화 자체의 담화적 구성과 관련하여 더욱 두드러진다. 우선 〈작은 연못〉은 주로 풀 샷(full shot)과 롱 샷(long shot) 위주의 프레임 구성을 통해 등장 인물들의 행동과 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감정적 동일화나 일체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작은 연못〉이 '영화'이긴 하지만 실제 발생한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촬영 기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롱 샷은 연극에서 관객과 무대 사이의 거리와 거의 일치되는 시점에서 바라보게 하는데,[15] 이는 다수의 연극 연출의 경험에서 축적된 감독의 재현 관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클로즈 업(close up)이 간혹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학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상황이나 그 과정에서 등장 인물들 중 한 부류인 어린이들의 불안하고 긴장된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 활용되었다. 카메라의 움직임 또한 영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관습인데, 〈작은 연못〉은 편집이나 '컷(cut)'이 거의 없고, 롱 테이크(long take) 기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찰하는 구성 방식을 택하였다. 아울러 인공 조명이 아닌 야외 자연광을 주로 활용하면서 인위적인 연출을 최소화하는 점도 〈작은 연못〉의 표현 특징 중 하나이다.

이렇듯 극영화의 기교나 표현을 최소화하면서 노근리 사건을 재현하고 있기에 〈작은 연못〉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영화적 상상력에 의한 서

15) Louis Giannetti, *Understanding Movies*, 박만준·진기행 역, 『영화의 이해』, K-books, 2010, p. 12.

사 구성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작은 연못〉은 주관적 경험이나 영화적 조작 혹은 양식의 문제가 거의 부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일하게 비유적 수법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데, 바로 '고래(whale)'라는 상징의 활용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작은 연못〉에서 표현된 유일한 허구적인 이미지이자, 영화 내에서 매우 이질적인 시각적 효과를 가져온다. 동시에 고래는 영화의 구조적 의미 차원에서도 특별한 '기능'을 한다.

고래는 영화에서 세 번 등장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화라는 '서사'의 어떠한 지점에 위치하는가에 있다. 고래는 주 텍스트 내에서 한 번, 파라텍스트 내에서 두 번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6] 이는 〈작은 연못〉을 영화 서사의 구조적 차원에서 파악함으로써, 고래가 표상하는 의미를 무엇인지를 다루도록 요청한다. 우선 주 텍스트의 측면에서 보면 〈작은 연못〉의 의미는 희생과 죽음의 서사로 해석된다. 주 텍스트의 범위에 한정하면 〈작은 연못〉은 노근리 학살 사건 그 자체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고래의 첫 번째 등장은 이와 관련된다. 주 텍스트 내에서, 고래는 삶터를 떠나 '가마봉'에 잠시 머물던 마을 사람들이 미군들의 명령으로 다시금 피난을 가는 중, 강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길을 나서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여기서 고래는 죽음을 암시하는데, 해당 장면 직후 피난민들에 대한 포격과 사살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장면은 영화 프레임의 횡축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피난민들과 대비하여, 화면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들어오는 고래를 표현하고 있기에 그 시각적 이질성이 극대화되며 관객들에게 '낯선' 이미지로 제시된다.

---

16) 주네트에 의하면, 텍스트는 주 텍스트와 파라텍스트로 구분된다. 주 텍스트를 본문이라고 본다면, 파라텍스트는 본문을 보완하면서 본문과 관계하는 본문의 외부 요소를 의미한다. 이는 제목, 저자, 서문, 발문, 각주, 참고문헌, 사진 설명 등을 일컫는다. 주네트는 이러한 파라텍스트가 독자들에게 텍스트의 내용들을 전달하거나 통제하거나 혹은 독자와 텍스트를 매개하며, 특히 텍스트 자체를 넘어선 의미 해석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Genette, Gerard, Seuil. Lewin, J. E.(Trans.),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Original work published 1987). 참고.

〈그림 1〉 고래의 첫 번째 등장
출처: 영화〈작은 연못〉의 장면, 저자 직접 캡처

두 번째 고래의 등장은 영화의 마지막 지점, 즉 주 텍스트가 끝나고 제시되는 파라텍스트의 일부인 주변 텍스트에 위치한다. 철길에서의 폭격과 쌍굴에서의 사살로 인한 희생 이후, 일부 생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실종된 줄 알았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 부모와 재회한 시퀀스는 영화 텍스트의 종결을 의미한다. 고래는 텍스트가 종결된 상황에서 등장한다. 즉 가족으로 귀환하는 어린 아이와 더불어 가족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지점에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첫 번째 등장과 달리, 고래가 프레임 즉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표현된다. 그리고 이후에 영화 서사의 파라텍스트가 시작된다. 이와 같이 고래를 염두에 두고, 파라텍스트까지 주목하면 〈작은 연못〉은 귀환과 재생의 서사로까지 확장된다. 특히 애초에 죽음과 재생이라는 개념은 본래 한 쌍을 이루며 그 의미를 상호보완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화에서의 고래는 이 둘의 경계에 있으면서 양단을 연결하는 대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작은 연못〉에서 고래는 노근리 사건의 발생 혹은 죽음의 상징이자, 사건의 종결 혹은 재생의 상징으로서, 이러한 의미에 대한 시각적 환기 장치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그림 2〉 고래의 두 번째 등장
출처 : 영화〈작은 연못〉의 장면, 저자 직접 캡처

〈작은 연못〉은 노근리 사건을 죽음의 관점에서만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엄밀하게 말해, 주 텍스트의 영역에서는 노근리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참상을 보여주는 서사이지만, 파라텍스트의 영역에서는 귀환과 재생을 재현하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생과 관련된 파라텍스트는 앞서 언급한 두 번째 고래의 등장 이후, 화면에서 고래가 완전히 벗어나면서 시작된다. 영화는 여기서 "전쟁을 그 후로도 거의 3년간 계속되었다. 1950년 7월 26일에서 29일 사이,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 일근 철길과 쌍굴에서 남쪽으로 피난 중이던 인근 주민 수백명이 미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희생되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길고도 긴 싸움을 해왔다. 2005년 5월에 와서야, 한국 정부는 상해,사망,실종 등 희생자 218명, 유족 2170명을 확정한다고 발표하였다."라는 자막을 보여준 후, 사라졌던 고래가 어두운 배경의 화면 앞쪽에서 뒤쪽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모습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고래의 세 번째 등장이다.

〈그림 3〉 고래의 세 번째 등장

출처: 영화〈작은 연못〉의 장면, 저자 직접 캡처

이후, 본 영화가 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노근리다리〉, 생존자 인터뷰 자료에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와 관련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명단을 보여준다. 이어서, 마을 어린이들이 학예회에서 노래하고 이를 즐겁게 관람하는 마을 주민들을 보여주는 에필로그가 삽입되

어 있는데, 이것은 '학살이 없었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장면이기에 영화가 제시하는 일종의 욕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17]

따라서 〈작은 연못〉의 고래는 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들의 희생 혹은 죽음과 그 이후의 재생 혹은 새로운 삶의 지속을 동시에 표상한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래 장면은 노근리 사건의 종결 이후에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영화 서사의 파라텍스트에 위치한다는 점에 비추어, 그 의미가 전쟁 이후 생존자들 및 유가족들과 맞닿아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근리 사건 생존자들 및 유가족들은 전쟁 이후 계속해서 한국 및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공식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청했다. 영화는 지속되어 왔던 투쟁의 '일단락'을 밝히는 지점에서 고래를 등장시켰다. 〈작은 연못〉에서 고래는 망각되었던 노근리 사건에 대한 기억의 재생이자 회복의 표상이다.[18]

정리하면, 〈작은 연못〉은 노근리 사건을 참상 그 자체로만 기억하지

---

17) 여기에 덧붙여, 본격적인 노근리 사건의 서사가 제시되기 전에, 영화의 도입부는 마을에서 좌익 계열 인물을 수색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이것은 에필로그와 한 쌍을 이루는 파라텍스트의 한 요소인 프롤로그로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 즉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했던 상황임을 알려준다.

18) 그렇다면 '왜 고래인가'에 대한 문제는, 동서고금의 신화, 전설, 설화 등에서 고래가 신성성, 모성성, 그리고 죽음과 재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작은 연못〉에서도 이를 차용하였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고래의 상징에 대해서는 박미숙, 「고래(Whale)상징에 대한 연구」, 『모래놀이상담연구』, 제16권, 2022, 1-16쪽.을 참고할 수 있다.
관련하여, 본 논문은 일종의 구조주의적 입장에 근거하여 영화 서사를 다루기 때문에 감독의 의도 파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나 작가주의적 접근은 논의 지점에서 벗어난다. 다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상우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고래를 한 번도 못 봤다. 포경선 탄 사람 아니면 못 봤을 것이다. 고래를 보면 얼마나 신비스럽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굉장히 크고 묵직한 고래는 소중한 존재다. 우리는 고래를 살리자고 말하지 않느냐. 사람도 고래처럼 정말 소중하고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고래를 살리자고 하듯이 사람을 살리자는 메시지를 영화 맨 밑바닥에 넣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599803&code=13200000.
이렇게 본다면, 본 영화에서는 굳이 고래가 아닌 다른 대상이 등장하였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고래는 시각적인 이질성을 통해 전쟁의 비극이라는 현실이자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자의적인 장치로 이해된다.

않는다. 죽음과 희생의 서사로 사건을 묘사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이후의 재생과 그 의미를 동시에 다루었다. 〈작은 연못〉은 목격자의 시선에서 노근리 사건을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단일한 사건으로 기억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전달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이후 어떻게 기억되고 해석되는가에 대한 과정들을 동시에 담아내고자 했다. 결국 〈작은 연못〉은 희망과 욕망의 성취라는 극 영화의 틀 속에 사회적 재현으로서 다큐멘터리의 수사학을 동시에 채택하여 노근리 사건에 대한 대중 기억을 새롭게 활성화하고자 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IV. 영화 〈작은 연못〉을 둘러싼 기억 투쟁과 경합 : 리뷰를 중심으로

노근리 사건 그리고 한국 전쟁에 관한 대중 기억과의 관계는 영화적 구성이나 서사 차원에서만 다뤄질 수 없다. 왜냐하면 기억의 활성화는 결국 해당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이 어떠한 형태로 기억을 변형, 공유, 그리고 확산시키는가 등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연못〉이라는 영화 서사나 재현 그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넘어서 그 재현의 조건이나 맥락 그리고 수용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노근리 사건과 그것을 포함하는 한국 전쟁에 대한 대중 기억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우선 영화의 생산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작은 연못〉은 연극 〈칠수와 만수〉, 〈늙은 도둑 이야기〉 등을 연출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이상우가 감독을 맡았으며, 송강호, 문성근, 강신일, 이성민, 전혜진 등 한국 영화계의 걸출한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통계 정보에 의하면 누적 관객수는 47,160명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개봉 영화의 관점에서 보면 흥행하지 못한 영화였다(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19] 또한 본래 2002년부터 제작이 시작되었지만, 2010년 4월에 개봉하였다.[20] 제작 기간이 오래 소요된 이유는 영화 투

자사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며, 이에 배우들 및 스텝들로부터 제작비를 충당하여 영화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작은 연못〉은 장르 영화의 맥락 속에서 대중이나 영화 산업계로부터는 다소 외면받았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 영화 시사회 당시, 진보 계열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영화를 직접 관람하며 많은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제작 단계부터 개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은 〈작은 연못〉이 정치 그리고 경제 혹은 산업의 역학 관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는 단지 감독이나 배우들에 의해 창작된 재화 혹은 작품인 텍스트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파생되는 대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산의 맥락 외에, 수용의 맥락 또한 과거를 재현한 영화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리고 영화와 대중 기억 간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즉 대중 기억은, 영화는 과거 사건을 어떻게 고증하는가에 관한 접근을 넘어서는, 기호화와 기호해독이라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한 사례로서 영화에 대한 수용자들의 후기나 평점(評點)을 꼽을 수 있다.[21] 관련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대중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저장소를 구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

19) 흥행 여부의 문제는 영화에 대한 재화적 속성이나 산업적 가치와 관련된다. 본 논문은 이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흥행 여부가 논의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흥행 부진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기억의 경합 양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참조점의 가능성을 가진다.

20) 2009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작품이나 거장들의 신작 등을 소개하는 갈라 프리젠테이션의 상영작으로 초청되어 선(先) 공개되기도 했지만, 영화 배급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개봉된 시점은 2010년 4월 15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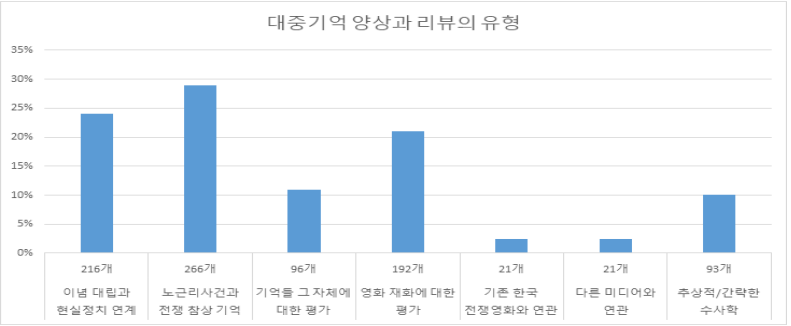
21) 영화의 수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평론이나 토론 등도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대중 기억의 관점에서 수용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기에 대중들의 자유로운, 비전문적인 그리고 비제약적인 참여의 '무대'인 후기/댓글 게시판을 분석하였다.

인터넷 공간 속에서 대중들은 영화에 대한 리뷰나 평점을 제시함으로써 영화의 사회적 의미를 확장하는 실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 기록되고 배포되는 대중들의 리뷰나 평점은 대중들이 〈작은 연못〉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에 따라 영화를 포함한 노근리 사건 그리고 한국 전쟁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본 논문은 국내 포털 사이트인 'NAVER'에서 운영하는 서브 콘텐츠 및 서비스 중 하나인 'NAVER 영화'를 통해 대중들의 리뷰와 평점 분석을 통해 영화의 수용 양상과 의미화 과정을 살펴보았다.[22] 2023년 5월 9일 기준으로 전문가 리뷰를 제외한, 905건의 관람객 평점과 리뷰가 등록되었으며, 평점은 성별로 보면 남성이 6.08, 여성이 7.96을, 연령대로 보면 10대가 7.54, 20대가 7.08, 30대가 6.59, 40대가 5.85, 50대 이상이 4.12를 제시했다. 이에 총 평점은 6.62이다. 단순 수치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대가 젊을수록 영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중요한 문제는 평점의 평균값인 6.62에 있지 않으며, 그러한 수치가 도출된 원인에 있다. 평점은 대체로 10점 혹은 1점과 같이 양극단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모습은 단순한 양적 지표에서가 아니라 리뷰를 통해 확인된다. 리뷰는 평점에 대한 근거이자,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발화이며, 노근리 사건과 그것에 대한 재현을 둘러싼 대중 기억의 현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작은 연못〉의 리뷰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을 일목한 표는 다음과 같다.

---

22) 이는 일종의 인터넷 에스노그라피이다. 인터넷 에스노그라피는 온라인 공간의 댓글이나 게시판을 공동체 속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혹은 일종의 문화적 실천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익명으로 제시되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의미 있는 참여 행위로 인식하면서 그 의견 교환이나 논쟁거리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조영한, 「인터넷과 민속지학적 수용자 연구: 인터넷 에스노그라피의 가능성과 과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1호, 2012, 121쪽.



〈그림 4〉 대중 기억 양상과 리뷰의 유형

출처: 저자 작성

리뷰에서 두드러지는 대중 기억의 첫 번째 유형의 특징은 이념적 대립의 소환과 그에 따른 현실 정치와의 연계와 맞닿아있다.[23] 이것은 한국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완강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집단 기억이자 반공주의라는 문화적 구속의 전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입장에 근거한 일부 리뷰는 〈작은 연못〉이 북한을 지지한다고 보거나 혹은 반미(反美)의 입장에서 노근리 사건을 재현하였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낮은 평점을 부여한다.[24] 이것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나 평가와 맞물려 있거나, 지역 감정 혹은 정당 정치와 같은 현실 정치의 영역에 기대어 〈작은 연못〉을 재구성하는 의견으로도 이어진다.[25] 즉 이들은 (노근리)사건과 (작은 연못)재현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

23) 이 유형의 리뷰는 216개이며, 대략 24%의 비율을 차지한다.

24) “이런영화 만들기전에 북괴놈들이 학살한것도 같이 만들지 왜 편파적이야”
“6.25남침 60년 되는 해에 이딴 쓰레기같은 빨갱이 영화가 왜 재개봉되는건지 화난다”
“이정도면.. 역사왜곡아닌가요..;; 어린애들이보면 미군때문에 전쟁난줄알겟네요”
“반미영화네. UN군이 안왔다면 컴퓨터질은 커녕 정일이나 찬양하며 살고 있을거다ㅡ.ㅡ”

25) “문성근이 주연인 영화 무슨말이 필요할까? 그야말로 반미주의자의 영화일뿐”
“정치적인 영화..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노사모 연예인들의 무료출연...”
“김대중 시절에 나왔다면 흥행했을텐데 ㅋㅋㅋ”
“전라도 단체관람환영”

에 초점을 두면서 〈작은 연못〉의 의미를 규정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노근리 사건은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인 조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양국의 입장이 공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식 기억(official memory)과 별개로,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 반공주의적인 집단 기억에 근거하여 영화를 이해한다. 한 마디로 말해, 이와 같은 리뷰는 한국 전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특정한 집단 기억이 일종의 문화 체계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영화가 제시하고자 하는 혹은 제작자의 입장에서 선호되길 바라는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관점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이와는 달리 그러한 이념적인 혹은 정치적인 대립과는 별도로 노근리 사건 과 한국 전쟁의 참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작은 연못〉을 평가하는 사례도 있다.[26] 이들은 현실 정치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작은 연못〉을 대상화하는 견해와 달리 전쟁 그 자체로부터 비롯된 인간성의 상실이나 희생 그리고 그 트라우마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재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27] 따라서 이와 같은 리뷰는 좌익이건 우익이건, 그 어떠한 이념이건 간에 그러한 갈등에 근거한 기억들 그 자체와 대립하는 일종의 양비론적 입장에서 〈작은 연못〉을 수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그와 같은 대립하는 입장에 있는 리뷰들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깊게 다루기보다는 다소 감상이나 연민에 기반한 리뷰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리뷰가 대체로 높은 평점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은 앞서 〈작은 연못〉에 대한 서사 분석에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 그리고 리뷰의 첫 번째 유형과 대비되어, 영화가 제시하는

---

26) 이 유형의 리뷰는 266개이며, 대략 29%의 비율을 차지한다.

27) "이유없는 전쟁의 광기,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아픔, 슬픔, 누구의 책임?"
"너무나 억울하고, 불쌍한 이야기 인데, 정치적인 감정으로 보지 말고 사실만 봤으면"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죽은 사람은 어쩔거냐? 양키, 북한 둘다 쥑일놈이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마시고 제발 사실을 봐주세요주민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학살당했습니다ㅜㅜㅜㅜ"

의미를 공유함과 동시에 그것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리뷰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 번째 대중 기억의 유형은 기억들 그 자체에 대한 평가이다.[28] 이것은 제시된 리뷰들에 대한 반응이자 그에 대한 일종의 응답과 같은 리뷰이다.[29] 따라서 이들이 리뷰에서 보여주는 수사학은 일부 대화체의 형식을 취하며, 다른 리뷰와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띄기도 한다. 이들 리뷰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영화 그 자체에 관한 의미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해 〈작은 연못〉을 매개로 한 '현재 인터넷 공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억 갈등의 양상에 있다. 즉 이들은 '리뷰에 대한 리뷰'를 제시하고 있기에 일종의 '메타 리뷰'라는 성격을 취한다. 이러한 재귀적(再歸的) 반응은 대중 기억이 과거의 사건이나 그것의 구체적인 재현에 한정하지 않고 그 다양한 기억들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기억의 윤리성 또한 담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30] 따라서 이러한 대중들의 반응은 기억의 왜곡, 통제 등과 같은 일련의 기억 관리 과정에서 대중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리뷰에서 주목되는 네 번째는 영화 〈작은 연못〉이라는 '재화'에 대한 평가이다.[31] 이러한 리뷰는 〈작은 연못〉에 대한 미학적 관점과 더불어 영화가 가지는 완성도에 대한 문제에 집중한다.[32]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

28) 이 유형의 리뷰는 96개이며, 대략 11%의 비율을 차지한다.

29) "어효 여기서 색깔논리 ㅋㅋㅋㅋ 평생 그렇게사쇼들ㅋㅋㅋㅋㅋ 영원히"
"왜1점 아니면 10점밖에 없냐. 평점을 왜쓰는지 모르는 개념없는인간들이 이렇게 많냐"
"이런 기억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하네여 바보같이 악플다는 비매너 **같은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그러시는지요?"
"호, 불호가 극단으로 나뉘네."
"이런 평점 테러, 네이버에서 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30) 대중 기억을 미디어 그리고 재현과 밀접한 기억의 한 유형으로서 문화적 기억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미 얀 아스만은 문화적 기억의 특징 중 하나가 집단의 생활 세계와 자화상에 대한 성찰 뿐 만 아니라 기억 그 자체에서도 성찰할 수 있게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Assmann, Jan,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1995, pp. 125-133를 참고할 수 있다.

31) 이 유형의 리뷰는 192개이며, 대략 21%의 비율을 차지한다.

혹은 역사적 구성물로서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보다는 영화라는 형식 문제에 더 치중한다. 실제 〈작은 연못〉은 영화라는 창작물이며, 그에 따라 감독이 의도하였던 연출이나 편집 등과 같은 미학적이고 형식적인 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대중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노근리 사건이나 한국 전쟁에 대한 영화적 형식과 내용도 존재한다. 특히 앞서 영화 텍스트 분석에서도 다루었던 '고래'에 대한 반응은 이들 리뷰에서 언급되는데, 해당 이미지가 가지는 시각적 이질성에 대한 표층적인 감상평들이 그것이다. 이들 리뷰는 결국 영화적 재미, 감동, 쾌락 등과 연관된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면, 일부 리뷰는 〈작은 연못〉이 영화 산업에 의해 생산되고 관습화 된 영화 재화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일치하는가 혹은 불일치하는가라는 문제에 집중한다. 더 나아가 이들 리뷰는 그것이 노근리 사건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 되거나 혹은 그와는 별개로 영화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드러낸다. 즉 영화가 기억을 매개한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 대중성에 근거해야 대중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 번째 리뷰의 유형은 이와 같은 유형이 좀 더 확장되어, 〈작은 연못〉을 다른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애초에 텍스트는 그 자체로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는 상호텍스트성 개념과 맞닿아있다.

---

32) "영상은 아름다웠지만 사건이와닿지도않고 슬픔도 부족..고래는? S.F? 고생했지만 비추"
"사건 자체는 슬픈 사건인데, 영화는 관객들이슬픔을 공감하기엔 너무 부족하고 다소 지루하게만 느껴져서 아쉽습니다.그리고 피난길에 고래는 왜 나오는지"
"완성도 측면에서 보면 수작이라 할수는없겠지만 보는내내 가슴이 참 아픈 영화라는 것."
"아픈 전쟁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다니'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경외심이 들게한 영화"
"영화에 이야기가 없다. 이따위로 만들면 사람들은 외면 할뿐..."
"감동은 훌륭하다..허나 영화의 구성은..조금 안타깝다."
"배우들 연기력보다 감독기량이 너무 딸린다. 이따위로 만들거면 만들지마!! 돈아까워!"
"이념을 떠나서 재미자체가 없네요... 오락성을 기대하고보면 실망할 듯"
"특수효과에 좀만 더 돈을 쓰지. 역사적 배경과 훌륭한 연기를 완전히 갉아먹는다."
"'노근리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만, 영화적 완성도는 다소 떨어진다."

이를 반영하는 리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첫 번째 유형은 〈작은 연못〉을 기존의 한국 전쟁 영화와 연관시키는 방식이다.[33] 따라서 리뷰에서는 이미 제작 및 상영되었던 한국 전쟁 영화들이 언급되며 그것과 〈작은 연못〉을 비교한다.[34] 실제, 현대 영화는 일종의 영화적 관습이라는 장르 속에서 존재하며, 이것은 영화 산업, 감독 그리고 대중들이 서로를 의지하는 지점이 된다. 그리고 영화 장르는 관습화 된 '시각적 쾌락'을 생산하고 소비토록 한다. 아울러 전쟁을 재현하는 영화는 현대 영화에서 '전쟁 영화'라는 일종의 장르로서 자리매김할 만큼 전쟁 상황에 대한 스펙터클을 강조하고 캐릭터들의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극적 구성을 취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노근리 사건 또한 한국 전쟁의 한 상황이라는 점에 비추어, 기존에 생산된 한국 전쟁에 관한 전쟁 영화라는 장르적 관습이 〈작은 연못〉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덧붙여, 〈작은 연못〉이 그러한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는 앞에서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일부 리뷰는 기존의 한국 전쟁 영화들에 대한 영화 장르적 성과에 근거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과 관련된 두 번째 유형은 〈작은 연못〉을 영화가 아닌 다른 미디어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설정하는 방식이다.[35] 이것은 대중 기억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대중 미디어와 교섭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리뷰의 유형이다.[36] 즉 대중 기억은 특정 장르나 영역 내

---

33) 이 유형의 리뷰는 21개이며, 대략 2.5%의 비율을 차지한다.

34) "보지마라 존1나후회한다 그냥포화속으로봐라 전혀슬프지도않다"
"진짜cg도최악 스토리도최악 2002년태극기휘날리며cg만도못함"
"전쟁영화는 여지껏 많이봐왔지만 이영화는 참 많은걸 깨닫게해주네요"
"전쟁영화가 항상 스펙타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럴거면 다큐로 만들던가"
"군함도보다 만배 나은 작품. 재개봉해서 사람들이 볼수있게 해야한다."
"헐리우드 영화같은 완성도를 기대하진 마세요. 그 이상이 있습니다."

35) 이 유형의 리뷰는 21개이며, 대략 2.5%의 비율을 차지한다.

36) "이게 무슨 영화냐...다큐멘터리...그냥 티비에서나하지"
"고생은 했지만 22% 부족. 돈문제인가? 방송프로 이제는말할수있다를 보는 게 낫겠다."

에서만 독립되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커뮤니케이션 체계 속에서 그 의미가 창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리뷰는 〈작은 연못〉을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과 교차시킨다.

결국 상호텍스트성을 시사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리뷰는 〈작은 연못〉이 단일한 텍스트로서가 아닌 다양한 '텍스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것은 대중 기억이 기억 산업이라는 맥락 그리고 기억의 재매개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준다. 다시 말해, 〈작은 연못〉은 다양한 대중 미디어를 통한 과거에 대한 기억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 체계를 기억 산업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억들이 상호교차하고 의존하는 재매개적 양상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유형들에 속하지 않는 리뷰들도 있다.[37] 이들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간략한 수사학에 기초하고 있다.[38] 따라서 영화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일부 리뷰는 일종의 간략한 메모나 낙서와 같이 단지 리뷰를 제시하는 그 행위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제시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리뷰가 무가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유형 또한 대중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한 〈작은 연못〉에 대한 흔적이자,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노근리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요컨대, 리뷰들은 대체로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각 리뷰 작성자들

"최수종 주연의 드라마보단 낫다"
"영화를 보기전에 〈노근리이야기〉를 꼭 읽어보시길...."
"원인분석도 없이 한쪽으로 치우친 감성팔이 . . . 그리고 영화라고 할수도없다 ! 그냥 MBC 서프라이즈 제현극을 보는듯하다 !"

37) 이 유형의 리뷰는 93개이며, 대략 10%의 비율을 차지한다.

38) "배고프다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런일이 있었다고"
"걘 안돼"
"죄송합니다"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의 인식의 지평이 어떠한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전쟁을 둘러싼 대중 기억의 일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대중들의 적극적인 실천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대중 기억 개념에서 중요한 문제는 과거 인식에 대한 개인들의 실천성인데, 리뷰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그리고 이들 리뷰는 한국 전쟁에 관한 대중 기억이 전쟁을 둘러싼 담론들 외에 다양한 외부의 담론들과도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전쟁에 관한 대중 기억의 복잡성은 지배적인(dominant) 역사를 수용하거나 혹은 저항하는 대립적인 입장에 한정되지 않고 현실 정치 및 국제관계, 영화 및 영화 산업, 미디어 재현 등 다양한 맥락에 근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V. 나가는 글

본 논문은 영화 〈작은 연못〉을 통해 한국 전쟁 중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중 기억이 구성되는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분석 결과, 〈작은 연못〉은 기존 장르 영화의 관습을 최소화하고 사실주의 혹은 기록 영화적인 수사학을 채택하여 노근리 사건을 재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작은 연못〉은 노근리 사건의 참담한 상황만 아니라 후속 조치를 함께 보여줌과 동시에 그 기억의 환기를 유도하였는데, 이는 영화의 서사 구조의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다른 한편, 〈작은 연못〉을 매개로 한 노근리 사건과 한국 전쟁에 관한 대중 기억의 구성의 문제는 영화에 대한 평점과 리뷰를 통해 다루었는데, 그 양상은 정치적, (영화)산업적, 그리고 미디어 환경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과거를 재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 있다. 앞서, 노근리 사건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맥락 그리고 한국 전쟁에 관한 지배 기억과의 충돌 과정 속에서 다뤄졌음을 언급하였다. 이

러한 상황은 그것을 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작은 연못〉은 그러한 지배 담론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영화라는 재현물이 일반적인 재화나 상품과 달리 정치적 구성물임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즉 영화가 무엇을 다루고자 하는가, 누가 그 제작에 참여하는가 등과 같은 문제가 애초에 정치적 행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제작, 유통, 소비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영화는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 텍스트라는 점에 비추어, 그 의미가 생성되는 사회적 상황과 영화의 정치성이 결부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작은 연못〉은 그 자체가 기존의 한국 전쟁 영화라는 재현 관습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재현의 정치성을 함축한다. 〈작은 연못〉은 장르 영화의 규범을 탈피하고, 제한적인 상징만을 활용함으로써 노근리 사건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했다. 이것은 전쟁 영화라는 틀 속에서 그간 대중들이 공유하였던 전쟁에 관한 의미나 인식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방식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노근리 사건을 재정의하고 그 경험을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한 〈작은 연못〉만의 재현 방식인 것이다. 결국 기억과 재현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재현이 영화 혹은 어떠한 방식이던 간에, 재현이 단순히 과거를 복제하거나 그 기억을 그대로 반영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와 그 기억에 대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두 번째 시사점은 대중 기억이 다양한 기억들의 경합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에 있다. 〈작은 연못〉이 의도한 노근리 사건에 대한 기억의 방식과 의미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노근리 사건에 대한 대중 기억은 〈작은 연못〉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님도 확인되었다. 〈작은 연못〉은 노근리 사건 그리고 한국 전쟁에 대한 대중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일종의 단서로서 인식된다. 특히 리뷰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지배 기억, 공식 기억. 대항 기억 등과 같은 여러 기억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체성들이 〈작은 연못〉을 매개로 공존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 기억 산업의 맥락과 더불어 미디어 환경의 복잡성은 대중 기억이 단일한 형태나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도록 한다. 따라서 대중 기억은 집합적이거나 무정형의 '획일화 된 대중 기억이 아니라 다양한 대중들의 기억'으로 새롭게 재개념화될 수 있다. 즉 대중 기억은 특정한 기억을 지시하는 단수로서의 기억 내용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기억들이 경합을 꾀하는 정체성 투쟁의 장(field)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작은 연못〉은 그간 한국 영화 산업 체계 속에서 생산 및 유통되던 한국 전쟁 영화가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와 스펙터클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한국 전쟁을 다뤄왔던 것과 달리 민간인 희생이라는 노근리 사건에 주목함과 동시에 영화적 재현의 관습으로부터 탈피한 시도였음이 확인되었다. 영화의 상업적 흥행이나 완성도와 같은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여전히 노근리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할 때, 이러한 작업은 한국 전쟁에 관한 대중 기억의 구성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근리 사건의 재현 그리고 한국 전쟁에 관한 대중 기억의 문제를 화두로 삼았지만, 영화 〈작은 연못〉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폭넓은 논의로 확장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노근리 사건은 〈노근리 평화공원〉, 〈노근리 평화 기념관〉, 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다큐멘터리 〈노근리 사건의 진실〉 등과 같은 여러 매체와 형식을 통해 재현된 바 있다. 이들 대상들은 각기 다른 경험과 수용 행위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기억 재현의 미학적이고 형식적인 문제와 더불어 노근리 사건 그리고 대중 기억 구성에 관한 의미에 대해 보다 다각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모리스, 마크, 2018,「냉전 패닉과 한국전쟁 영화 : 죽창에서 신체강탈까지」, 김소영 편,『한국영화, 세계와 마주치다』, 현실문화연구, 2018.

문선영,「한국전쟁과 애도의 수사학: 〈작은 연못〉을 대상으로」,『아시아영화연구』 제3권(제2호), 2010.

박미숙,「고래(Whale)상징에 대한 연구」,『모래놀이상담연구』, 제16권, 2020.

조영한,「인터넷과 민속지학적 수용자 연구: 인터넷 에스노그라피의 가능성과 과제」,『미디어, 젠더 & 문화』, 제21호, 2012.

태지호,『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태지호,「역사문화콘텐츠 연구 방법론으로서 '문화 연구'를 전유하기」,『인문콘텐츠』, 제64호, 2022.

태지호·황인성,「영화에서 드러나는 한국전쟁에 대한 집단기억과 대중기억 만들기」.『한국언론학보』, 제58권(제6호), 2014.

황영미,「영화에 나타난 한국전쟁기 미군과 민간인의 관계: 〈작은 연못〉, 〈웰컴 투 동막골〉. 〈아름다운 시절〉을 중심으로」,『현대영화연구』, 제18권, 2014.

Louis Giannetti, Understanding Movies, 박만준·진기행 역,『영화의 이해』, K-books, 2010.

Robert Bevan, The Destruction of Memory Architecture at War, 나헌영 역,『집단기억의 파괴』, 알마, 2012.

Assmann, Jan,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1995.

Connerton, Paul,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Foucault, Michel, 'Film and Popular Memory', Radical Philosophy, 5(11), 1975.

Erll, A., Memory in Cultur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1.

Genette, Gerard, Seuil. Lewin, J. E.(Trans.),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Original work published 1987).

Rosenstone, R. A., Visions of the past: the challenge of film to our idea of hist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Sturken, M., Tangled memories: The Vietnam War, the AIDS epidemic, and the politics of remember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평화공원 홈페이지, nogunri.yd21.go.kr.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599803&code=13200000.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http://www.kobis.or.kr.

〈ABSTRACT〉

The Nogeun-ri Incident Represented by the Film 〈A Little Pond〉 and the Construction of Popular Memory of the Korean War

Tae, Jiho

The question of how to remember the Korean War is one of the important indicators that define the identity of Korean society and its members to this day. There are many types and aspects of memory related to the Korean War, but this study tried to explore its meaning through the movie <A little Pond>(2010). <A little Pond> was the first film to deal with the Nogeun-ri incident, a civilian massacre, through the popular media of the movie, and it is clear that it is an example of popular memory about the Korean War. To this end, this study was discussed based on two research methodological positions: film text and its audience. This means that the discussion of the representation itself, such as the narrative, expression, and symbol of <A little Pond>, as well as the issue of how the audience accepts or means i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 little Pond> rejects the genre conventions of existing Korean war movies and minimizes technique or expression. <A little Pond> encouraged the regeneration or evocation of memories beyond describing only the death or sacrifice that occurred in the Nogeun-ri incident. Second, through review analysis,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popular memories of the Korean War appeared in various ways through <A little P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 are summarized as

summons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restoration and penance of humanity, evaluation of memory itself, evaluation of the goods of film, and intertextual memory. In conclusion, <A little Pond> is not just a movie that presents visual experiences, but a cultural practice that reveals the politics of memory, and accordingly, it has been confirmed that popular memory is also composed in competition among various memories.

Key Words : The Korean War, The Nogeun-ri Incident, A Little Pond, Popular Memory, Representation, War Films